

 한국농축산연합회	성명서
	발송일 : 2021.08.03
▶제공자 :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담당자 : 임병희 집행위원장(010-4230-9847)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정자1길 180,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B동 2F ▶전 화 : 041)553-5562 ▶팩 스 : 041)041-553-6654 ▶이 메 일 : krice@korearice.net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농업’ 철학의 천박함을 우려 - 경자유전은 농업의 근간, 원칙 지켜져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농업’ 철학의 천박함을 우려한다.

경자유전 원칙 실현은 식량안보의 첫걸음이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은 윤 전 총장의 농업 철학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농업을 홀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고 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농지 소유 문제에 대한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지주와 일제로부터 수탈당한 소작농의 아픔과 농업의 중요성을 담아 해방 후 농지개혁을 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의 근간인데 이를 규제로만 인식하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

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1%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확보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돼야 한다.

경자유전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며 스마트팜을 강조하면서 농업을 비즈니스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인식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역대 정부가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농업을 홀대해 왔는데 윤 전 총장 역시 경쟁만을 강조하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농업을 단순히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상업화된 농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이자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기를 바라며 향후 대선에서 농정공약을 만들 때 농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 회원단체(30개) :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연합회, 한국새농민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화훼협회(가나다 순)